

온 가족 함께 순천만정원서 추석연휴 즐기세요

14~18일 다양한 문화행사·체험프로그램...한복 착용 무료 입장
신발 던지기·팔씨름·딱지치기...국악·성악·팝페라 풍성한 공연
테라피가든 음악&명상 힐링 체험...어린이동물원 곤충 기획 전시

순천시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순천만국가정원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험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한복'을 입고 국가정원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은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문화행사 '정원한가 WE!'...즐거움 공연과 체험의 향연= '정원한가 WE!'는 오는 15일부터 17일

까지 스페이스 허브 원형광장에서 열리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15일 오후에는 '정원의 발롱도르'라는 재미난 이름으로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신발 던지기 게임이 펼쳐진다. 16일은 팔씨름, 딱지치기, 17일에는 어린이시절 딱지 쫓겨 본 사람들이 도전해 볼 수 있는 '정원의 딱지왕' 배틀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퓨전국악팀

인 국악양상 '한음'과 'PLAY가은'팀의 퓨전국악, 성악, 팝페라 등 다양하고 풍성한 공연도 관람할 수 있다.
◇슈퍼히어로 캐릭터 대소동...현실로 나온 우드베어를 구출하자=시크릿어드벤처에서는 신비의 행성 '우드플래닛'에서, 생명력을 잃어가는 마더트리리를 구하기 위해 나타난 우드베어를 4D 영상 속이 아닌 현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캐릭터가 직접 나타나 현장에서 우드베어들과 우주 악당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을 구출하여 영웅이 되는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다. 슈퍼히어로 캐릭터 대소동은, 14일부터 18일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가정원 식물원 2층 시크릿 어드벤처(유료)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음악&명상 테라피...취향저격 테라피가든 힐링 체험=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테라피가든이 제격이다.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오전 10시~오후 5시) 선선해진 가을 날씨를 만끽하며 정원 속 탁트인 공간인 테라피가든 마당에서 편안한 음악과 향이 어우러진 힐링 명상을 즐길 수 있다.
◇곤충 기획 전시...추석에만 방문하는 곤충의 세계=국가정원 어린이동물원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곤충 기획 전시를 볼 수 있다. 딱정벌레, 대벌레 등 살아있는 곤충 15종과 곤충표본 전시뿐만 아니라 여치, 귀뚜라미들의 소리를 직접 듣는 풀벌레 음악회 등 다양한 곤충 관련 체험프로그램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곳에서 알파카와 사자찍기 체험도 해볼 수 있다.

한편, 추석 연휴 동안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SNS에 후기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시원한 커피 쿠폰도 받을 수 있다. SNS 후기 이벤트는 정원한가WE!, 슈퍼히어로 캐릭터 대소동, 음악&명상 테라피, 곤충 기획전시, 드레스코드 '한복' 등 다섯가지 이벤트 중 하나에 참여하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 후기를 작성한 사람 중 100명을 추첨해 지급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맞아 국화와 코스모스 등 형형색색의 가을꽃들로 새롭게 단장된 국가정원은 손님 맞이 준비를 마쳤다"며 "가족들과 함께 방문해 즐거운 추억을 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강진군, 남호지구 '신규마을' 속도...전원주택 16세대 건립

이달 기반공사 마무리 내달 착공

강진군의 인구소멸위기 대응 전략 주거지원사업 중 하나인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이달 안에 남호지구 신규마을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신규마을 조성 지원사업은 15호 이상 전원마을을 만드는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마을의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들 위해 강진군과 전노봉은 지난해 12월 남호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전노봉은 이후 9개월 동안 토공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달 내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공작업이 완료되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단독주택 신축공사가 진행된다. 2025년까지 1만 5541㎡(4709평) 부지에 전원주택 16세대, 마을회관 1곳의 신규마을이 조성된다. 강진군 대구면에 인구 유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해당 용지는 바다가 보이는 오션뷰를 갖추고 있다. 쾌적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훌륭한 입지 조건으로 전원주택 16세대 모두 100% 사전 분양 완료됐다. 이 가운데 14세대는 인근 광주 등 도시민이 분양받아 입주할 예정이다. 인구 유입의 실질적인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강진군이 직접 시행하는 임천지구 신규마을 조성 사업도 순항 중이다. 임천지구는 전원주택 150

세대와 진입도로, 상·하수도, 관계인구센터, 공동체체험터 텃밭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내년 9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도시민 유치와 동시에 은퇴 후 고향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향우 등의 유입에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강진군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임천지구 신규마을 조성 사업은 올해 진입도로 개설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내년 9월 설계가 완료되면 분양과 동시에 기반 시설이 조성돼 인구소멸 위기 극복의 성공 모델을 만들 어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따뜻한 추석 되세요"...소외 이웃에 한가위 온정



HD현대삼호, 쌀·상품권 등 위문품 전달

전남 서남권 최대 기업인 HD현대삼호(대표이사 신현대 사장)가 한가위를 맞아 지역사회와 온정을 나누는 데 앞장서고 있다.
HD현대삼호는 목포와 영암 등 회사 인근에 위치한 32개 사회복지시설과 보훈가족,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추석 명절을 맞아 쌀과 생필품, 온누리상품권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HD현대삼호 신현대 사장은 지난 12일 사업

장 인근에 있는 지역 사회복지시설인 목포광명원을 방문해 김경수 원장 등 관계자와 환담을 나누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사진> 목포광명원은 장애인 복지시설로 시각장애인인 지적장애인 등 80여 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신현대 HD현대삼호 사장은 "지역의 핵심기업으로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환 기자 jbh@kwangju.co.kr

화순군 문화돌보미 공동체 70명 규모 '문화주치의단' 출범

문화 격차 해소 등 활동

화순군의 문화돌보미 공동체인 '화순군 문화주치의단'이 출범했다.
화순군은 지난 9일 화순군청 대회의실에서 '화순군 문화주치의단' 발대식(사진)을 가졌다고 밝혔다. 문화주치의단은 화순읍 10명, 12개 면별로 5명 등 총 70명으로 구성된 문화 돌보미 공동체이다.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문화주치의' 제도를 확대했다.
문화주치의단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문화 향유 소외계층에게 문화 소식을 전달하고 문화 행사장 이동시 동행 봉사를 지원한다.
또 문화 관련 다양한 정보와 물품을 전달하는 등 문화 자치공동체 실현과 문화 격차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독무와 국악가요 등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문화주치의단 활동 계획 안내, 단장 위촉장 수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운주사, 적벽, 고인돌 유적지, 꽃강길 음악분수대, 개미산 전망대 등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다채롭게 변화하는 화순군의 문화를 소개하는 포인트 강의를 진행해 관심을 모았다.
화순군 강삼영 문화예술과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문화 향유에 도움을 주는 문화 자치

공동체를 결성했다"며 "문화주치의단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주민 누구나 문화로 치유받는 문화 힐링의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여수상의, 복지시설 1000만원 상당 위문품

여수상공회의소는 추석을 맞아 지난 11일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 등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7개소를 방문해 10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사진> 여수상의는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응원의 뜻을 전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관계자들에

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매년 명절에 사회복지시설 등에 쌀과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있다. 여수상의의 관계자는 "올해는 예기치 못한 폭염에 많이 지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고 싶다"면서 "여수상공회의소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구례군 "출수기 30~40일 전후" 벼 완전 물떼기 적기 실시 당부

"고품질 쌀 생산하기 위해서는 벼 출수기 30~40일 전후에 완전 물떼기 실시해야 합니다."
구례군이 '벼 논물 관리 및 수확 기술 홍보'에 적극 나섰다.
조생종 벼(주로 전남1호)의 수확이 진행되고, 마늘·시금치·김장 채소 파종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중만생종 벼(주로 신동진, 새창무, 참동진) 수확을 앞당기기 위해 다소 일찍 완전 물떼기를 실시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완전 물떼기는 벼 파종부터 수확까지 기간 중 쌀 품질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논물을 완전히 떠는 시기는 기상·토성 등에 따라 다르나 충분한 여름을 위해서는 이삭 쫄 후 30~40일경이 적당하다.
물떼기 시기가 적기보다 빨라지면 청미, 미숙립 등 불완전미가 증가하여 수량과 품질이 저하되고, 너무 늦게 떠면 수확 작업이 늦어져 통알미(깨진 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박근규 구례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수확 적기는 조생종은 출수 후 45~50일, 중생종은 출수 후 50~55일, 중만생종은 출수 후 55~60일이 적기라고 밝히며, 완전 물떼기와 수확을 적기에 실시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하자"고 당부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해남군, 음식점 이용 시 쇼핑몰 쿠폰 지급

'너와 나는 식구랑께' 이벤트

해남군이 미식관광 활성화와 지역 음식점의 경기활력을 위해 '너와 나는 식구(食口)랑께'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벤트는 식구주간(19일이 포함된 1주) 관내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면 해남군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한다.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된 350명에게는 해남미소 쿠폰(최대 5만원, 이용금액의 19%)이 발급되며, 우수 후기 5건은 추가로 해남미소 꾸러미

가 지급될 예정이다.
참가 방법은 음식점 이용 영수증을 해남군 공식 SNS채널(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인증하고, 이용 후기를 작성하면 된다. 식구주간 관내 일반음식점을 이용한 관광객, 방문객 누구나 가능하다.
9월의 식구주간은 추석명절이 포함된 9월 16일부터 22일까지며, 응모기간은 9월 16일부터 27일까지이다. 응모는 1인당 1건만 인정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식구주간 해남을 찾는 모든 분들이 식구의 의미를 되새기며 즐거운 시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직불금 100% 받자...광양시 '직불100 캠페인'

광양시는 지난 1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사무소와 함께 '직불100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직불100 캠페인'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함으로써 미이행으로 인한 10%의 감액 없이,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한 실천 운동이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이 주도해 공익직불 준수 사항 이행, 직불금 감액 및 부정 수령 예방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이번 '직불100' 캠페인은 정책수혜자인 농업인단체가 참여해 민관이 함께

홍보에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출발식에 참석한 광양시 지역농협과 주요 농업인단체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농가 경영의 안정과 농업·농촌을 유지·보존을 위한 하나의 농촌사회 문화운동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허재규 농관원 순천·광양사무소장은 "공익직불제의 가치에 대한 농업인 인식을 높이고 의무 준수 사항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 관련 기관·단체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화순경찰-안보자문협의회, 탈북민 위문

화순경찰과 안보자문협의회(회장 노진우)는 12일 추석 명절을 맞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사진> 이날 지역 한 카페에서 화순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회원, 북한이탈주민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장승명 화순경찰서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명절을 앞두고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 할 시기에 안보자문협의회 회원들의 변함없는 위로와 지원활동에 감사드리며, 화순지역 북한이탈주민들의 전화금용시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변 보호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